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1  
1997

협회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 홍 국 편집 : 이 재 하

(우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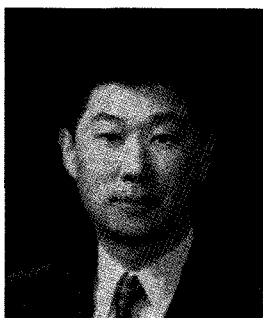
☎ (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3권 제1호 통권19호

### 신년사

## 닭고기 국제경쟁력 우위의 원년, 1997년



김 홍 국 회장  
한국계육협회

정축년 새해를 맞아 계육산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 했던 96년 한 해는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후퇴로 모든 산업이 어려움 속에 한 해를 보냈으며 계육산업도 예외 없이 소비부진과 계육값 하락으로 어려움 속에 한 해를 보냈다.

불황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계육협회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제화시대 경쟁력 제고와 계육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대감각에 맞게 협회 명칭을 바꾸었다.

회원 조직도 확대하는 한편 세계인의 식품으로서의 닭고기 위상 제고를 위한 '96 국제 닭고기 요리 경연대회 개최, 3저 1고 우수식품인 닭고기 퀴즈잔치 실시 등 소비촉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작금의 한국의 계육산업의 토양은 무차별적인 경쟁 하에 외국 농민이 생산한 닭고기가 우리네 식탁을 넘보고 우리 산업 또한 국내 시장의 경쟁력 우위 보다는 무한한 시장 확대의 잠재력이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시장을 향해 응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닭고기 산업은 소농가적 사고관, 비자본적 사고관, 노동집약적 사고관에 과감하게 탈피해 규모경제를 통한 상업농으로 전환이 필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업계가 혼연일체로 경쟁

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배합사료의 제세금 경감 △전·기업농의 세제 인하 △먹거리 생산차원의 농업범주내에서 계사 신축여건 개선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생산재로서의 제 에너지 비용 인하 등 산재한 많은 문제의 해결로 국제경쟁력제고는 물론 닭고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명실공히 97년은 닭고기 국제경쟁력 우위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수년 후 우리는 21세기를 맞게 된다. 긴 20세기를 살아온 우리가 또 다른 한 세기를 맞으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몸은 커 나가는데 옛날에 형님이 입던 옷을 그대로 얻어 입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돼 국제수준의 품격도 점차 갖추어 가고 있다. 계육산업도 전반적인 변화 속에 또한 국제수준에 맞추어 당당하게 생산, 유통, 소비의 선진화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

정축년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변화된 결과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直線)이며 우리는 이 직선을 정도(正道)라 일컫는다.

계육산업이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정도를 걸어 변화하며 발전 할 것을 기대한다.